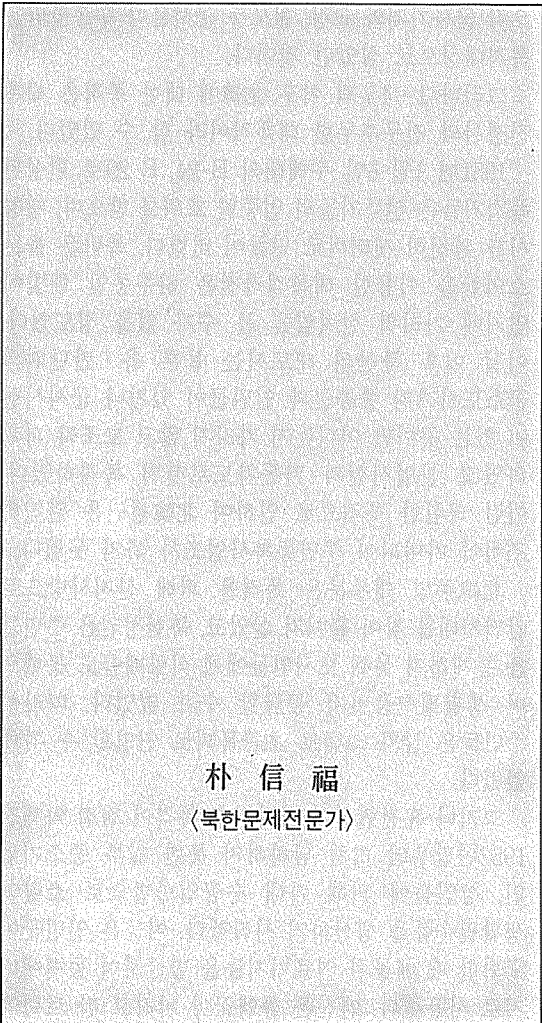


벌써 6·25동란이 일어난지 40년이 되었다. 40년전 우리나라의 남과 북에는 정유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6·25때 사용된 유류는 모두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비행기에 사용되는 제트유 탱크나 장갑차등 각종 차량에 사용되는 등유나 경유 할 것 없이 모두가 美國이나 소련에서 제공받

6·25동란과 유류



朴 信 福
(북한문제전문가)

았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수물자의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쪽에서의 준비는 철저할 수 밖에 없다.

6·25동란은 인민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1948년 2월 8일에 공식적으로 소위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북한정권은 6·25를 일으킨 1950년 중순까지 전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군 조직의 편성과 인적확보, 전투훈련은 물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병기와 각종 차량에 필요한 유류확보에 모든 힘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그 실례를 한가지 소개하면 6·25발발직후 서울에 맨먼저 도착한 인민군주력부대였던 105탱크사단장 류경수는 1950년 4월말에 소련에서 제공키로 했던 탱크와 유류를 인수하러 모스크바에 출장갔었고 6월초에는 평양비행장과 미림비행장에 수백대의 야크 비행기와 이에 소요될 항공유, 그리고 폭탄을 은폐시켜 놓고 작전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6·25동란초기

6·25가 시작되자 북한 전역에서는 18세에서 27세의 남자들에 대한 인민군 강제징집이 실시되었다. 강제징집은 도시·농촌을 불문하고 거리, 직장, 학교, 가정등지에서 행해졌다. 징집을 기피하기 위한 당사자와 부모들은 별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산에 들어가 숨거나 집안의 다락방과

천정, 부엌바닥, 장독대 밑을 파고 숨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팔다리와 귀를 자해해서 신체검사 불합격을 노리기도 했고, 정신병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들은 거의다 내무서원들에 의해 색출되어 6·25의 희생물이 되었다. 1951년 1·4후퇴 이후에는 15세에서 45세까지를 징집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북한 전역에는 청장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들만이 남아 있었다.

6·25초기 인민군은 공산권 특히 소련으로부터 각종 화기와 충분한 연료의 지원에 힘입어 승승장구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으나 유엔군의 개입으로 제공권을 빼앗기면서부터 더 남하하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다 국군과 유엔군의 仁川상륙작전으로 해서 후방으로부터의 군수물자 지원이 차단되어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낙동강까지 진출하였던 인민군은 그들이 갖고 있던 탱크와 장갑차등 중장비와 유류일체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다.

전쟁발발 3개월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38선까지 밀려난 인민군은 군수물자 전부를 잃게 되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오직 북으로 북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정치공작원들이 파악한 일명 반동분자라는 신분의 지식인, 종교인, 기업가, 지주등의 가족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중공군의 개입과 1·4후퇴

1950년 11월 국군과 유엔군은 서쪽으로는 평북 선천, 중북부로는 압록강변의 초산, 동북부로는 두만강 하류인 아오지까지 진격하여 신의주 일대를 제외한 북한지역 대부분을 수복시켰다. 그러나 동년 11월에 소위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명명하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라는 민족의 대이동과 함께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남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50년 12월초부터 북한주민 60%이상이 복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길에 나섰다. 동쪽에서는 그 유명한 興南철수작전이 있었고, 중부와 서부에서

는 1번국도를 따라 남하했다. 당시 북한주민들의 피난행렬은 평양에서 개성, 평양에서 해주방면으로 장장 300여리에 달했었다.

대폭격작전

6·25초기 북한주민들은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별로 느끼지 않았었다. 다만 敵·我간의 진격과 후퇴과정에서 적을 도왔다거나 반동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쓴 일부 민간인들이 그것도 민간인 스스로 살생을 하기는 하였으나, 폭격에 의한 참혹상은 별로 보지 못하였다. 전쟁초기 유엔군 공군기들은 병원과 민간주택, 공공건물등 대부분을 남겨두고 오직 군사기지와 교량, 철도등 군사물자 수송망만을 폭격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1·4후퇴 이후 北韓에 대한 폭격은 세계 전쟁사의 전무후무한 대폭격이라 할 수 있었다.

1951년 1월 6일 수백대의 B-24, B-29로 편성된 폭격기들은 전투기들의 엄중한 호위를 받으며, 평양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폭탄은 물론 소이탄을 이용한 대폭격작전은 하루종일 햇빛이 연기에 가리워 한치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날 이후 북한의 대도시는 물론 읍·면단위의 군소도시까지 중공군과 인민군이 있거나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모조리 파괴하였고 산업시설과 자동차도로까지 폭격하였다. 이런 극심한 폭격으로 인하여 北韓정권은 완전히 조직이 마비되어 주민등록사업조차 하지 못했다.

北韓주민 대부분은 폭격을 피해 산지사방으로 안전지대를 찾아 흩어져 살았고,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통제하지 못해 도시민들에게 식량배급도 못했으며 생활필수품마저 공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글자 그대로 초근목피로 연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휴전협정이 시작된후 폭격이 점점 약해진 1952년말부터 미처 남하하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인, 상인들에 의해 가내 수공업방법으로 소량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민군이 후퇴할 때 매몰한 연료기지를 발굴하여 동력에너지로 사용했다. 엔진은 유엔군이 버리고 간 트럭엔

진을 주로 사용했다.

미련한 공사

유엔군의 참전으로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북한은 6·25초기 탱크와 기갑부대를 앞세워 싸웠던 것과는 달리 인해전술로 겨우 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동차나 기차로 군수품을 전선으로 수송한다는 것은 마치 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한시도 북한상공을 비우지 않았던 유엔군 공군에 밥이 되곤 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유엔군으로부터 제공권을 빼앗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중공과 소련으로부터 미그15와 17까지 제공받아 공중전에 투입하려고 해도 체공시간이 짧아 남쪽으로 전진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1951년 4월부터 평양 대동강변에 비행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당초 건설기간을 1개월로 잡고 매일 군인 5천명과 민간인 5천명씩 투입하였으나, 유엔군의 폭격으로 수많은 사상자만 남긴채 결국 비행장 건설을 포기하고 말았다.

처음 비행장 건설이 시작되었을때 매일 2~3차례씩 폭격을 하였으나, 계속 공사가 진행되자 유엔군에서는 「무모한 죽음의 공사에 동원되지 말라」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여 민간인 동원을 중지시켰고, 군인만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자 매일 하던 폭격을 중지하고 있다가 활주로 정지작업이 끝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될때만 폭격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헛고생만 하도록 하였다. 결국 7차례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그때마다 폭격으로 실패한후 평양비행장 건설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후 中國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압록강 하류의 의주근방에 군용비행장 건설을 다시 시작하였다.

1951년말부터 시작된 의주비행장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유엔군의 폭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1년만에 건설을 완료하고, 소련에서 제공된 미그15와 17, 그리고 中國공군기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다.

포로를 방패삼아

1951년부터 인민군 총사령부와 중공군사령부는 평북 운산에 있는 운산금광 지하에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군수물자 지원은 운수장비와 연료의 부족때문에 인력 아니면 축력을 이용하여 야간에 행해졌다.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38선까지 다시 찾은 그들은 유엔군 포로들을 공중폭격으로부터 방패막이로 이용하였다. 유엔 공군기들은 주로 군사시설과 공공건물, 철도, 교량등 군수물자 보관과 수송수단만을 폭격하고 가급적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을 자제했는바 공산군은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군수물자 특히 유류보관에 이용하였다.

공산군은 평양과 기타도시들에 얼마 남지않은 공공건물, 주로 병원과 학교에 유엔군 포로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유류저장창고로 이용하면서 옥상에 적십자(+)표시를 하여 놓았고, 유엔 공군기들이 나타나면 포로들을 운동장에 끌어내어 열십자 대형을 만들어 공중폭격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평양의 기림국민학교였다. 이 학교의 일부에는 유엔군 포로들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인민군 후방사령부로 주로 유류보관창고로 이용하다 '52년봄에 사령부와 유류만 모란봉에 있는 양명사로 이전한후 대방화를 일으켜 수많은 유엔군 포로들이 참사를 당하게 하여 놓고는 유엔군이 포로수용소를 폭격하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를 하였다고 국내외에 대대적 선전을 한 사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공군기들은 주로 순발탄과 시한폭탄을 함께 사용하여 폭격을 하였는데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는데 유엔군 포로들을 서슴없이 이용하였다.

공중전과 연료통

북한상공에서 공중전이 본격화된 것은 미그15와 17이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의주비행장 건설이 완료된 1952년말부터였다.

6·25당시 제공권은 유엔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은 항상 북한지역의 해상이나 산간지역에

서 벌어졌다. 그것은 공중전에 의한 지상의 피해와 전투기조종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북한과 중공의 공군전투기들은 유엔군 전투기와 조우할 경우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상공까지 몰려나 공중전을 벌였다. 그들이 선택한 상공은 의주비행장에서 가까운 산간벽촌이었으며, 공중전 결과는 항상 유엔공군기들의 승리로 끝났다.

공중전은 5~10분간 치열하게 전개된후 각자의 방향으로 기수를 돌려 쓴살같이 흩어진다. 그 이유는 공중전 시작전 쌍방의 전투기들은 기체의 활동을 민첩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 장착하였던 예비연료통을 모두 떨구어버려 체공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이다. 공중전에는 보통 12~16대의 쌍방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로 전후좌우로 추격전을 벌여 2~3대가 공대공 기관포에 맞아 추격되면 즉시 패자와 승자가 결정되어 패자의 도망으로 마무리되곤 했다. 공중전이 전개될때 주민들은 전투기에서 비오듯 발사하는 기관포의 유탄과 탄피의 낙하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전투가 끝나면 즉시 활동을 개시한다. 어른들은 연료통을 찾아 뛰어가고 아이들은 추락된 비행기와 조종사를 찾아 달려간다. 어른들은 물통과 삼을 들고 공중전 직전에 쌍방기에서 낙하한 연료통을 찾아 연료통속에 남아있는 기름과

기름이 흠뻑 배어있는 흙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이다.

연료통속의 깨끗한 기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기름이 배어있는 흙은 물속에 넣어 물위로 떠오르는 기름을 회수하여 등유(燈油)로 사용하고 연료통은 알미늄판으로 되어있어 그것으로 가정용 합지박과 물통, 도시락을 만들어 팔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될수가 있어 공중전이 자주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공중전의 후유증도 적지 않았다. 논밭에는 기관포 탄피가 적지 않게 널려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발탄을 갖고 놀다 희생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6·25당시에는 적·아를 막론하고 유류가 없어 외국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었고, 어느편이 더 많은 유류를 확보하느냐가 전투에서의 승패를 좌우하였는바 그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전투에서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 싸움에서의 승부를 좌우하고 있는바 아직 한방울의 원유도 생산되지 않아 해외에서 돈주고 사다쓰는 우리의 형편에서 유류절약의 생활화는 끝없이 전개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

환경보전 국민생활수칙

1. 물과 전기를 아껴쓰는 습관을 생활화하자.
2.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은 되도록 적게 사용하자.
3. 음식찌꺼기는 봉지에 싸서 버리고 쓰고 남은 식용유는 휴지에 묻혀 버리자.
4. 쓰레기는 타는 것, 타지않는 것,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누어 처리하자.
5. 고무, 비닐 등 독한 냄새를 내는 물질을 함부로 태우지 말자.
6. 자동차정비를 철저히하여 매연을 줄이자.
7.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내지않도록 하자.
8. 하천에서 세차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지 말자.
9. 남시·등산시에는 도시락을 이용하고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오자.
10. 농약은 알맞게 뿌리고 페비닐과 빈병은 반드시 다시 거두자.
11. 풀 한포기, 새 한마리도 우리의 가족처럼 아끼며 보호하자.